

“평화·통일 희망의 씨앗 싹 틔우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 9개월 대장정
고교 1년생 80여명 참여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졸업식
역사의식 고취·자기주도 교육
평화·통일 위한 선언문 채택



‘2019 전남통일희망 열차학교’ 졸업식 이후 졸업생과 장석웅 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한 ‘전남통일희망 열차학교’가 졸업식을 끝으로 9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전남통일희망 열차학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전남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0명이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됐다.
5차례의 국내캠프와 국외교육활동(통일희망대장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실천의지와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다.
역사·통일에 대한 의식 고취와 자기주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활동을 통한 과제수행 능력, 자기관리능력, 자기능력 향상, 성과를 자체 제작을 통한 자신·성취감 등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올해 7월 24일~8월 9일까지 16박 17일 일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진행된 ‘통일희망대장정’을 통해 항

일 독립 투쟁에 앞장선 선열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참여한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58권(저자 76명)의 책을 제작·출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밖에 4개의 영상물과 사진, 엽서 등에 담아 지난 21일부터 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 성과전시회를 열고 있다.
25일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전남통일희망 열차학교 통일희망’을 선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평화와 통일의 일

꾼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어떤 외부 힘에도 위협받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일상에서 갈등과 분쟁 대신 상생과 협력, 평화의 삶을 실천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로 구성된 ‘열차학교 학생자치회’는 추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동아리 활동과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방송제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SNS 통일희망서포터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실천 가능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통일희망서포터즈 활동을 더 확산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우리 민족이 걸었던 애국의 길, 고난의 길, 개혁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학생들도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썼다”며 “프로젝트를 통해 품은 통일의 씨앗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에는 기존 ‘전남통일희망 열차학교’를 ‘평화통일희망학교’로 전환해 전남도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대 교수들의 릴레이 재능기부

사진 촬영·글 쓰기... 청소년 대상 특강·자격증 학습 잇따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교수들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재능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광주대 사진영상드문학과 조대연 교수는 최근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땀과 드림’ 교육지도사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실기 위주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광주대 심리학과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식에서 호텨관광영영학부 한규무 교수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임형택 교수가 각각 ‘한국사 판도리상자

열기’, ‘사회안전망과 멘토링의 실제’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예창작 프로그램 ‘글적글적’에서 기초교양학부 박순원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는 등 광주대 교수들의 재능기부 릴레이가 잇따르고 있다.
임형택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은 “광주대 교수들의 재능기부 릴레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대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는 교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청소년들에게 더욱 특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기후문제 통한 조선시대 재난의 역사 조명

조선대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제1회 재난인문학 포럼

조선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28일 ‘조선시대 기후와 재난’을 주제로 ‘제1회 재난인문학 포럼’을 개최했다.
조선대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난인문학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동아시아 재난 연구의 동향과 초점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재난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을 밀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회 재난인문학 포럼은 김택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저서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와 여러 논문을 중심으로 기후 문제를 통해 조선시대 재난의 역사를 조명했다.
‘기후사’라는 새로운 렌즈로 조선시대 대기근의 현황과 극복 과정,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을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학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관계자는 “조선시대 대기근을 물고 온 이상 기후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밀착된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포럼이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시민과 ‘명상의 밤’

광주여대 내달 2일 잔디광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MAUM교육원이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30분~밤 9시30분까지 광주여대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잔디광장에서 (사)한국명상학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연계 MAUM행사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명상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주민 및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명상 공연·명상 토크·달빛 명상 순으로 각각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여대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MAUM교육 선도대학’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특화된 마음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과정을 통해 온전한 자기이해 및 긍정적 수용으로 행복감을 높여 그 가치를 지역사회에 나누고 공헌하는 참된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여대 MAUM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대학구성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골고루 먹어야 튼튼대장 될 수 있어요”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위탁운영 중인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희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근 가을 동안 동신대 산학협력관에서 ‘골고루 먹는 튼튼대장’, ‘원숭이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편식예방 손인형극을 진행했다. <동신대 제공>

선생님 대신 예술가로 불러주오

광주교육청 내일~내달 8일 ‘교직원예술제’ 개최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19 광주교직원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문

화예술동아리가 자율연수를 통해 갈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발표하는 행사다. 교직원이 문화예술을 배워 창의·감성적 이해를 높이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행사 기간 예술제 전시회에서는 ‘함께’를 주제로 40여 명의 교직원이 출품한 문인화, 민화, 탕화, 한과화, 서양화, 압화, 사진, 도예 등 45점이 전시된다.
11월 8일 열리는 예술제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관악합주, 국악현악, 오고무, 사물놀이, 밴드, 색소폰 등 11개 프로그램에 150여 명이 참여해 무대에 오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교육박물관 건립”

도교육청 자료 기증 캠페인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박물관(가칭) 건립을 위해 전남교육 역사 자료 기증 캠페인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수집 대상 유물 자료는 근·현대 전남교육 역사와 관련한 모든 유물자료와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다. 해당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는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유물자료 기증은 무상 조건이 원칙이며, 소장 권위가 분명해야 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기증이 불가능하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수여하는 등 예우를 위해 다양한 특전도 준비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대 국제교류본부

2학기 이증언어과정 문화탐방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는 경영학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해남군과 진도군 일원에서 ‘2학기 이증언어과정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와 전공에 대한 이해 및 유학 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문화탐방에는 경영학과 전공교수들도 참석해 유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생대표 정만준은 “해남 화원농협김치 가공공장 견학에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라인생산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현장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